

당우부터 생애까지 전통사찰 '모든 것' 살핀다

전국에 산재한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수 조사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전국 942개 전통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늘어가는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전통사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조사기준조차 제대로 마련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4개년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해 전국 9개의 사찰을 표본으로 조사항목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전수조사 형태의 본 조사로 전환했으며, 현재 조계종 문

화부는 산하에 관련 연구원들 11명이 참여하는 전문 연구팀을 구성했다.

올해의 조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분포하는 14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 권역 273개 △2016년 인천 대전 세

건축물의 경우 비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상태와 보존가치를 파악하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전통사찰의 경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사찰 식생조사를 통해서도 사찰 주변의 숲이 가지는 경관성과 방재성을 검토하고, 사찰 조경 식재 현황

중심 사역 내의 행위제한구역도 조사한다. 또한 사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상부의 현황 및 새롭게 조성된 주요상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며, 전통사찰들이 제기하는 지원 요청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예정이다.

이번 조사 사업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이번 조사는 전통사찰의 건축물, 문화유산, 소유 토지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사찰 내 비지정 건조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기회이며, 그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찰림이나 노거수, 조경과 같은 사찰식생을 전통사찰의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 문화부 전통사찰 보존위한 전수조사 실시 2017년까지 4개년 계획... 942개 전통사찰 대상 문체부 40억원 지원 건축물·토지 등 총체적 조사

중 경기 충북 충남 276개 △2017년 서울 대구 경북 252개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목록화 조사와는 달리 건축, 사찰 식생, 성보문화재, 토지 등 전통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총체적 요소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이다.

을 살피며, 사찰 내에 산재한 역사적·유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비롯한 주요 수목들을 발굴하는 등 전통사찰의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인위적·자연적 식생의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조사는 사역과 사역 내 토지의 지목을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며,



3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AI 살처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행위가 출범했다. 사진은 생매장 당한 닭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중단하라"

조계종 등 종교·시민단체, 살처분 대책위 출범

"지난 1월 조류독감(AI) 발생 후 현재 1100만 마리의 닭, 오리들이 살처분됐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말쑥한 닭과 오리들을 싸늘히 죽이는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중단하라."

AI 살처분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종교·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환경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18개 단체는 3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야만적인 정부의 살처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 "AI 발생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방역 문제 등 국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예방적 살처분과 불법 생매장 중단 △예방백신 제도 도입 △공장식 밀집사육 폐기 △살처분 전담기구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농업 식품부 장관 면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지역·사찰은 '不二' ... 유기적 결합 필요"

26일 조계종 포교총책연찬회서 '한 목소리' 강조

"나는 우리 동네 사찰을 보고 있으면 농촌의 현실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늘어났듯이 사찰도 머리가 허연 노보살들만 보입니다. 스님들은 우리와 잘 만나주지도 않고 서울의 높은 분만 상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찰은 없습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3월 26일 개최한 제55차 포교총책연찬회에서 소개된 한 지역농민회장의 지역 사찰에 대한 불만과 푸념이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기조를 '지역전법 중심 토대 구축'으로 삼았다. 이번엔 열린 포교연구실의 연찬회도 이 같은 기조의 실천에 일환이다.

이날 연찬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재 지역 불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제대로 된 지역 포교 모델이 부재하다보니 경험도 적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포교활

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설립이 제안되고 있지만 지역 사찰이 이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지역민들은 회의감을 피력한다는 것이다.

노후 스님은 "규모가 크던 작던 농촌 지역 사찰은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운영 리더십이 전무하다"면서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내적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찰 공동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모델 사례들은 존재한다. 백담사의 경우 2011년 지역인 용대 2리와 백담마을기업을 2013년 용대향토기업을 만들었다. 특히 용대향토기업은 백담사와 마을 간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 한 해 매출이 16억 원에 달한다. 이 기업에는 마을 주민 197가구가 전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를 소개한 박주연 조계종 중



노후 스님 박주연 본부장

'지역은 포교 텃밭' 구호만 사찰·지역 유기적 결합해야 마을 기업 등 사례 발굴하고 도농 연계 법인 설립 필요 중단, 총책 개발·지연 나서야

양신도회 불교사회적경제 지원본부장은 "백담사는 어려운 마을을 위해 버스 사업권을 넘겼고, 마음은 공동체 형성과 이익금을 살려냈다"면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훌륭한 모범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도농사찰간의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표 법인들을 만들어 생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단 역시 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이석십 조계종 총무차장은 "중단 정치의 과잉으로 각종 중단 행정과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포교와 수도권 포교활성화라는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합들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포교원은 필요 예산과 인력을 이 사업에 집중해 교구와 지역사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스님은 "34대 집행부의 교구중심제와 포교원의 지역포교 활성화 실현을 위한 정책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민관협력 개발, 소프트 콘텐트 개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신설... 불교교양 강화

'지혜와 자비' 영역 개설해 불서 확대

동국대가 교양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다르마칼리지(Dharma College)'를 신설하고 불교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했다.

다르마칼리지에서 대표적인 교양 교육과목은 '세계명작세미나'다. 존재와 역사, 경제와 사회, 자연과 기술, 문화와 예술, 지혜와 자비 등 5개 영역으로 명작을 나눠 4학기 동안 125권을 읽게 한다.

당초 동국대는 '지혜와 자비' 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4개 영역을 준비하다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의 비판에 '지혜와 자비' 영역을 개설하고 불서를 대폭 늘렸다. 총 125권 중 25권이 불서다.

이 밖에 다르마칼리지는 다전공 지식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 사회, 자연, 기술 등 학생들의 지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양교육

을 실시한다. 또한 다르마칼리지 산하 창의혁신소통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종연 동국대 교수(다르마칼리지 학장)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문 고전교육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선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동국대만의 교양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986호 INDEX

신사찰 건축 안양 한마음 선원	13	종합 총무원장 선거 변화 해법 모색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	2·3	신행·복지 다시 뛰는 병원불자연합회 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프로그램 화엄만다라	6·7
		연중기획 탐·진·치 줄이기	5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16·17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 삼
단독입점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삼 TEL 02)2004-8216